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어제 오늘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1978년 5월 7일 예수승천대축일(홍보의 날)에 서울주보 1호가 탄생했습니다. 서울주보에 교구 내 모든 본당이 참여하지는 않았고, 준비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주보 탄생에 어려움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2월 16일 토요일 명동대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님 10주기 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1978년 당시 홍보교육 국장이셨던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님을 성당 마당에서 만났습니다. “주교님, 처음 서울주보를 내셨을 때 모든 본당이 다 참여하지 않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주교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 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본당이 참여하게 되었지. 신부님들이 잘 협조해 주셨어...” 주교님은 갑자기 소환된 과거의 기억 때문인지 잠시 생각에 잠기면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1978년 5월 14일 자 서울주보 제2호에 교회 소식란 첫 번째 제목으로 ‘서울대교구의 어제 오늘 내일’을 흥미롭게 전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 1968년도 사제 숫자는 139명(한국인)과 86명(외국인) 총 225명인데 2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타(?)로 생각이 됩니다. 1968년도와 1978년도 10년의 변화를 통계를 통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본당 수는 73%

증가하고 신자 수는 100% 증가했다. 그러나 사제 증가율은 과거 10년 동안 23% 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10년 후인 1988년에 본당 수 167개, 신자 수는 60만 명을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사제 수는 이런 증가율로 보면 360명 밖에 안 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사제 한 사람이 3,150명을 사목하는데 10년 후에는 1988년에는 4,000명을

사목해야 하는 하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서울대교구의 통계를 보면 이런 예상은 실제로 많이 벗어났습니다. 본당 수는 133개로 예상에 미치지 못한 반면 신자 수는 30만 명에서 10년 사이 280% 정도인 85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는 1988년 186명에서 107명이 증가한 293명이 되었고, 서울대교구에서 사목하는 외국인 사제 81명을 포함하여 410명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통계를 보면 10년 후인 1998년 폭

발적으로 증가하고 2008년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맞습니다.

교회소식

1. 서울 대교구의 어제 오늘 내일

년도	본당	신자	사제
1968	55	15만	228 (139 (한국인) 86 (외국인))
1978	96	30만	281 (186 (한국인) 95 (외국인))

위의 통계를 보면 과거 10년동안 본당수는 73%가 증가하고 신자수는 100%가 증가했다. 서울대교구는 명실 공히 배로 성장했다. 그러나 사제 증가율을 보면 과거 10년 동안 겨우 23% 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성장율을 그대로 놓고 10년 후를 내다보면 어떻게 되나?

본당수는 167개가 되고 신자수는 60만명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사제수는 360명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도 서울 대교구에서 사제 한 사람이 신자 약 3150명을 사목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구본부에 급격히 팽창하는 변두리 주택지구에도 본당을 신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후에는 여섯 될 것인가? 사제 한 사람이 4000명을 훨씬 넘는 신자를 상대로 사목해야 될 것이다. 이는 사실상 사목이 불가능한 숫자다. 우리 모두 교회의 앞날을 진지하게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II. 김수환 추기경님 방북 횡발

김 추기경님께서는 “종교와 평화에 관한 아시아협의회”(ACRP)총회에 참석하시고자 5월 6일 방북으로 떠나셨다. 김 추기경님은 동 협회회의 5인 회장단에서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가 된다.

서울대교구 통계

구분	인구	신자	본당	공소
1988년 말	11,334,786	857,966	133	16
1998년 말	12,262,602	1,253,932	203	6
2008년 말	10,200,827	1,384,238	217	183
2018년 말	.	1,529,800	232	.

서울대교구 성직자 통계

구분	주교+신부	주교	한국인 신부				외국인 신부			서울교구 활동 신부
			서울교구	선교회	수도회	한국인계	선교회	수도회	외국인계	
1998년 말	626	5	621	10	136	767	50	35	85	852
2008년 말	707	6	701	14	199	914	44	33	77	991
2017년 말	892	6	886	254		1,140	51		51	1,191
2018년 말	912	6	906
19년 사제서품 직후	937	6	931